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 : 15

363

2016. 4. 24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24)

오늘의 주요기사

- 2 UN 인권이사회를 다녀와서
- 3 생각하며 성경읽기
- 4 미국 연수기 / MUN 견학기
- 5 부리도생각
- 6 영화로 성경읽기
- 7 목회칼럼
- 8 아기사들이

교회 일정

- | | |
|----------|-------------|
| 5/1(주일) |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
| 5/5(목) | 무지개잔치 |
| 5/8(주일) | 성찬주일 |
| 5/9(월) | 정기당회 |
| 5/15(주일) | 성경강림주일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한가로운 토요일, 교회 앞마당에서 엄마와 아이가 비눗방울놀이를 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행복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므로 부부가 행복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 아이 양육에 가장 중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인간이 안식하며 위로받고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인간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의 영향을 받는다.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부모로부터 배워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성장하며 각 발달단계의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오늘 날 가정이 여러 이유로 파괴되고 있다. 부모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별, 별거나 이혼, 경제적 사정으로, 기타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다. 아이가 자랄 때 가장 중요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재의 가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인간 발달단계의 이행과제를 불충분하

게 되기 쉽기에, 아이는 어딘가 결핍을 경험하고 그 상처와 결핍이 내면화된 채 성장하게 된다. 또한 멀쩡하게 보이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일어나 레저, 중독 등 그릇된 남성문화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 부재의 가정이 되거나, 부모의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지도력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쉽게 설명하면, 가래떡을 만들 때 파이프를 통해 떡 반죽을 통과시키면서 떡을 둥글게 길게 뽑는데, 파이프가 찌그러져 있으면 가래떡도 찌그러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이나 과잉보호를 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등, 자신의 결핍을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 자신이 가장 미워하며 싫어하는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닮게 되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최근 신문방송에서 보도되어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도 이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던 부모의 모습을 자신의 자녀에게서 발견하고 더욱 미워하고 학대했는지 모른다. 아동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친밀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교육의 반면교사이며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학대를 배우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우선 우리 가정은 건강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가정은 대화가 있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준다. 책임을 나누며 유머와 기쁨이 있다. 사랑을 표현하며, 참아주며 격려하며 기다릴 줄 안다. 칭찬하는 말로 가족의 자존감을 키워주며 험한 말로 자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 2면에 계속

통일선교 특집

UN 31차 인권이사회를 다녀오며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섬김 받아야 할 분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지난 달 13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제31차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변협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다루스만의 보고와 탈북민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었으나, 대부분 이사국은 사안의 심각성에 동의하여 24일 강력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와 수단 등 반대하는 국가를 비롯한 각국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나름의 성과는 컸지만, 한편으로 약 5~10만에 이르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예노동문제가 결의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단계입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 5월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민 5백여 명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외신을 접

하고, 자유아시아방송 특파원인 故 안주현 집사의 도움으로 난민수용소를 방문한 것이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90평 남짓한 방에 약 350여 명의 여성들과 약 90명의 남성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기색들이 역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만삭의 임산부도 보였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이 먼 곳까지 온 분들이었습니다. 철창 너머의 눈들과 마주친 순간, 가슴이 죄여왔습니다. 무수한 자연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정치를 논하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문제 제기하고 함께 비통해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생명을 걸면서까지 떠나야 하며, 무수한 고초를 견뎌야만 하게 되었는가. 그 물음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어떤 말씀을 하시겠는가.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동

안(물론 이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뤄진 일이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의와 뜻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 벌거벗은 채로 모욕당하고 수난을 겪는 이들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애통해 하던 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정해진 때에 회복되리란 그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섬김 받아야 할 분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만 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용환 안수집사

>1면에서 계속

나는 부모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상처를 가족에게 전가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가족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친밀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자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가?

가정이 바로서야 그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바로 서게 됨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가정 안에서 행복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정사역, 특히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므로 부부가 행복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의 양육에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완벽한 모델인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부모가 되어 친밀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을 하나님 의 다스림 안에서 아름답게 이끌어야 한다. 그 안에서 가족이 각자 책임을 다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꽃피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 아닌가 한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7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橄欖油(감람유. olive oil)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7장 20~21)

橄欖(감람)의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올리브나무이며 팔레스타인에 흔한 나무이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고 이슬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 자란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대개 봄에 꽃이 피고 8-9월경에 수확한다. 감람열매에서 짜낸 기름 곧 감람유는 식용과 의약품. 등불을 밝히는 기름. 미용에 사용되는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생필품이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왕성한 결실로 인하여 아름다움과 수려함. 힘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 특히 성경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橄(감람나무 감) : 나무 또는 식물

의 총칭인 木(나무 목)에 용감성과 결단성을 상징하는 敢(감히 감)을 결합시켜 ‘나무 중 가뭇과 용감하게 싸워 왕성한 열매를 맺는 종류가 감람나무이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

★欖(감람나무 램) : 나무 또는 식물의 총칭인 木(나무 목)에 두루 보는 뜻을 지닌 覽(볼 램)을 합쳐 ‘나무 중 오랫동안 기다려야 열매를 볼 수 있는 종류가 감람나무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油(기름 유) : 액체의 총칭인 水(물 수)의 변형체 𣎵(삼수 변)에 까닭이라는 뜻을 지닌 由(말미암을 유)를 합쳐 ‘액체로 말미암아 불을 붙일 수 있는 종류가 기름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1



장애인의 주일을 맞아 사랑나무 아이들에게 손톱을 깎아주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혼자서는 손톱조차 깎지 못해 손톱 밑에 낀 때가 까맣지만 떨어진 손톱을 바라보는 눈길은 함께 하는 사랑을 함께 느끼는 사랑의 손이다.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성경 바로 읽기 |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서 ②

기독교의 뿌리 - 은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보통 '원관념'이라고 합니다)을,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것('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을 빌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는 한 송이 꽃입니다"라는 말은, "그대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대는 한 송이 꽃입니다"라는 말을 "그대는 모양과 색이 다양하며 꽃받침과 꽃잎,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 종자식물의 번식기관입니다"라고 이해하거나, "그대는 골목길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니면서, 개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짓눌려진 목련꽃과 같이 더럽습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많은 종교적, 기독교적인 이해의 대상은 미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

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을 은유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은유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이 필요한 까닭도 그것 때문입니다. 은유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일차적이고 상상적인 단계에서 이차적이고 개념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좀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유형을 셸리 맥페이그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은 지배적인 힘이 있는 은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은유의 '모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 이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위와 명칭을 빌어 표현하다보니, 그 당시로서는 한 나라 안에서는 가장 높은 존재였던 '왕(king)', 한 영지 안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했던 '영주(lord)', 당시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던 '아버지(father)'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은유로 부르면서 가족 안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집을 나가 방황하는 '아들'이 되며, 끝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탕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 새 옷을 지어 입히고, 축하 잔치를 여는 인자하신 존재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대는 꽃입니다"라는 은유를 "그대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라는 뜻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을 보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마가복음 7:7-8)라고 질타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다른 말로 풀면, "은유를 은유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혹한 자들아, 사람 손으로 기록한 문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은유의 모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을 '뿌리-은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뿌리-은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세상의 권세와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은유'였습니다.

함줄함울

사역부서 소식

미시오데이, 신망애교회 방문



미시오데이 찬양단에서 4월 17일 장애인 주일에 남양주 신망애 교회를 방문하여 음악예배를 드렸다. 봄햇살이 가득한 날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단과 장애인들은 함께함에 즐거워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찬양단원들과 여러 교인들은 생활관으로 이동해 이용인에게 합심기도를 하며 성령

이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마음이 가있기에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자리였다. 2015년에 이어 금년도 그리고 2017년도 함께한다는 약속과 함께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만들어 함께한 모두는 은혜로운 장애인 주일을 더욱 뜻 깊게 보낸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울

사역부서 소식

주님의교회 독서·인문·지혜 나눔



4월 17일 4층 소회의실에서 주님의교회 독서·인문·지혜나눔의 창립모임이 열렸다. 30여명의 참여 열기로 장소가 협소할 정도였다. 우리교회에 있는 다양한 인재, 전문가 등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길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갖고있다. 독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상식과 전문 지식을 풍성하게 누

리기 위해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는 것이다. 김정형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모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첫 주제 발표는 '희노애락과 화평의 문자적 의미'를 도예가 정도일 집사가 맡았다. 다음 모임은 5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 전 교회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함줄함울

교역자 연수기

나의 미국 연수기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과 미국 교회 현장들을 둘러보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교회에서의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래스카의 거대한 빙상,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년과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보고, 끝없이 펼쳐진 광대한 사막을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자연은 눈앞에서 경험한 경이로움에 감동과 흥분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침묵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들을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 지, 그 앞에서 인간의 욕심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도 돌아보게 된다.

한편,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지만 웬지 모를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의 다양한 모습들, 모든 것이 돈으로 대변되는 분주하고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 그 속에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다양한 역사들과 문화들도 보고, 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아픔의 현장들도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든 지역교회로, 그 지역적인 특색과 문화,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함을 보게 된다.

특히 가장 인상적인 세 개의 교회가 떠오른다. 가장 화려함을 자랑하

지만 파산한 오렌지 카운티 수정교회를 보면서 교회와 교회 건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정신 중 하나인 건물 무소유를 떠올려본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에 과감하게 건물에 투자하는 새들백 교회를 보면서(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고 (평일임에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이, 그리고 교제를 즐기고 있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경직되게 적용될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다. 무엇보다 교회건물은 넓고 허름하지만,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침투(여기서 침투는 정복이 아니라 섬김을 말한다)해 들어가는 워싱턴의 세이버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도 해본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덤으로 주어진 것도 너무나 풍성했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우리를 반갑게 환대해 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임을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가이드를 자처하신 목사님의 훌륭한 해설, 그리고 목회에 대한 생각들, 삶에 대한 다양한 지혜들도 배우면서 연수여행은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목사님의 마음 덕에 몸은 심히 고단하기도 했지만 말이다(새벽 1시전에는 결코 숙소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자동차로 달린 거리만 얼마였던가? ^^) 바라기는 이 연수가 나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전환점이 이 세상을 더욱 품고, 하나님과 몸 된 교회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해 본다.

장수현 목사

예수친구사역

세계 모의유엔총회 참가기



주님의교회 모의유엔(PCLMUN)은 UN과 국제기구들을 학구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기독교 세계관 아래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배우고 토의하는 “예수친구사역 Global Leader Project”입니다.

PCLMUN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님의교회 초중학생 12명과 교역자, 학부모 5명과 함께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모의유엔총회(Global Classrooms International

Middle School Model United Nations)에 참가하였습니다. (주최: UN, LAU(Lebanese American University, 1500여명 참석).

PCLMUN은 102개국 중 ‘베트남’ 대표, 6개 위원회로 지정되어 1년 반 동안 영어공부, 베트남에 대한 정보수집, 각 위원회별 이슈에 대한 교육 및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학생 2명이 Country Statement

Award(국가 성명문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참가 위원회 : 군축안보위원회(DISEC),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사회문화인도주의 위원회(SOCHUM), 인권이사회(HR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이번 기회로 청소년들이 세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문화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시야를 심어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이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찬 전도사



부리도생각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며...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면서 희비가 분명하게 갈라졌다. 크게 이긴 팀과 크게 진 팀. 다시 전세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소리가 벌써 들린다. 다음에는 기필코 이기리라! 하지만 누가 누구를 이기는지는 모르겠다. 모두가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섬김이라면 누가 이기고 질 수가 있는가? 왜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만 따지는 백성이 되었는가? 함께 이기고 함께 질 수는 없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기주의가 규범이 되고 “나”만이 판단의 기준이요 중심이다. 홀로 사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홀로 삶을 마치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리(convenience)와 효과(efficiency)라는 가치가 중심이 되면서 함께 함, 희생, 자기 포기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대체해 버렸다. 사회 구조도 홀로 살도록 재편성되고 있다. 가정, 직장, 미디어 등, 모든 구조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 설령 함께 한다면 지라도 진정한 우리로서의 함께함이 아니라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함께 함이다. 교회도 예전처럼 긴 의자를 두고서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자에

따로 앉아 예배를 드린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외로움, 자기 분열, 우울증, 가족과 도덕의 붕괴, 자연황폐... 모두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픔들이다. 과연 바른 모습인가? 과연 사람은 따로 따로 사는 존재인가? 경쟁하며 이겨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대로 끌려가야 하는가? 다른 길은 없는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 뉴턴의 근대 물리학에 기초한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다. 전체는 각각의 부품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합체일 뿐이다. 각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기능에 따라 모여 있을 뿐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새로운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의 필연적인 결과이면 자연 황폐라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세상은 따로 따로 모인 기계가 아니다. 물리학자 프리츠프 카프라의 말과 같이 우주는 부분의 집합이 아니라 생명의 그

물이다. 생명은 본질 자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웃이 고통하면 당연히 나도 고통할 것이며 자연의 신음도 우리들의 신음이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참된 공동체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함은 존중하는 공동체를 가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개인을 무시한 집단주의가 아니라, 집단을 버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바로 참된 공동체를 갖지 못한 아픔이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기술이 발달한다할 지라도 생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생명은 행복할 수 없다.

여기에 이 시대의 교회와 종교의 사명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생명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종교는 무엇보다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교가 생명보다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며 존재할 이유도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공동체를 근본으로 한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며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한다. 성경은 참된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한다. 몸은 각 지체들이 따로 따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각자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면서 전체를 위해 헌신한다. 지체 간에는 뗄 수 없는 연결됨이 있으며 차별이나 격리함이 없다. 모든 지체는 고유한 존재이며 각자의 아름다움과 사명을 통해 전체를 온전케 한다. 여기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자도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이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공동의 선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은 서로 헌신하며 각자를 존중한다. 지금처럼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신 거룩한 뜻에 헌신하기를 다짐한다.

박원호 담임목사

〉 ‘부리도’는 주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한강 남쪽에 있던 작은 섬이었으며, 새들의 낙원이었다고 합니다.

세례간증

세례의 기쁨

2016년 3월 20일 이날은 제가 새롭게 태어난 생일입니다. 지금까지 생일은 제 몸뚱이가 태어난 날이고, 이날은 제가 영적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어 거듭 태어난 날입니다.

3부 예배 세례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수를 제 머리에 듬뿍 적셔주시며 지금까지 지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코흘리개 시절에 산골 흙토담 교회에서 눈깔사탕이 먹고 싶어 교회에 나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늘푸른대학에서 에어로빅 반을 지도하고 아시아공원에서 기체조반 총무를 맡아주시는 최인영집사를 통해서입니다. 최인영집사는 늘푸른대학에 출석을 권유하며 ‘주님의교회가 진실된 교회’이니 주일예배 참석을 권유하셨습니다.

첫 예배에 참석한 날에 예배를 드리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요. 그냥 울다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울면서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사 늘그막에 찾아온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삶에 대한 불안, 초조,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이 기쁨일 뿐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새로운 생명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듬뿍 그리고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늘푸른대학 어르신들 주일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푸른대학 조규민 성도



영화로 성경읽기

〈가족의 탄생〉, 다시 생각해보는 ‘가족’의 의미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청년주일이 모두 이 달에 들어 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흔히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은 인류의 탄생 이래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언제는 인구가 너무 많다고 한 부모 한 자녀 운동을 벌이더니,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인구가 줄어 걱정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아, 그 ‘작은 단위’마저도 해체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가정도 과연 소멸된다는 얘기일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가족의 탄생〉(2006)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가족의 탄생〉은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부에서 미라(문소리)는 예고도 없이 5년 만에 나타난 남동생 형철(엄태웅)이, 20살 연상의 여인 무신(고두심)을 데리고 들어와 당황한다. 게다가 무신은 전남편의 딸도 데리고 있다! 2부의 주인공 선경(공효진)은 현실은 아랑곳없는 로맨티스트인 엄마 매자(김혜옥)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부의 채현(정유미)과 경석(봉태규)은 연인이다. 하지만 채현은 다른 남자들에게 항상 친절해서, 경석의 마음은 늘 불안하다. 〈가족의 탄생〉의 장면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영화는 이 세 가족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를 추적한다. 1부와 2부에서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철을 포함한 남자들은 책임감도 없고 가족에게 성실하지도 않다. 붕괴되어가는 가부장적 권위와 실종이 가족의 해체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함께 밥을 먹고 부대끼는 동안,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1부에서 형철은 또 바람처럼 떠나버리고 미라와 무신은 어린 채현을 함께 키운다. 2부에서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는 선경은 엄마의 바람기와 배다른 동생인 어린 경석을 미워하지만, 엄마 대신 경석의 유치원 운동회에 따라가면서 경석의 후원자가 되고, 시한부의 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세상을 뜨자 경석을 키운다. 3부에서 청년이 된 경석은 남들

일이라면 무엇이든 챙겨주는 ‘헤픈 여자’ 채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헤어지려 한다. 채현은 경석을 데리고 미라와 무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간다. 채현은 미라와 무신을 둘 다 엄마라고 부르는데, 두 엄마는 “헤어지면 밥도 안 먹냐”면서 경석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전통적 가부장적 권위와 책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형성된, 서로 피 섞이지 않은 인물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가족일까, 아닐까? 영화의 마지막에서,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현재의 채현과 경석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한 관객들은, 이윽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그 안과 밖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새삼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

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12:46~50)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그 모두가 서로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우리의 ‘가족’도 그 경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가정의 달, 새삼스럽게 이 영화를 통해 ‘가족’이 무엇일까 되새겨본다. 한국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입’을 뜻하는 표현인 ‘식구(食口)’라는 말은,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보다 기독교적으로 더욱 정겹다. 말쑥꾸러기 강아지와 새침한 고양이도 우리에게 소중한 식구이니,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생명 있는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일 터이다. 5월이 곧 다가온다.

함줄함줄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06년 발표된 〈가족의 탄생〉 편입니다.

2016 어린이무지개잔치, 곧 옵니다

2016년 5월5일 목요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가 열린다. 이번 무지개잔치 주제는 〈요셉과 함께 떠나는 Peace Story〉이다.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통해 새롭게 다가왔던 요셉이야기를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평화의 메시지가 어린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질 것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다.

요셉이야기Zone에서는 5가지 코너를 통해 성경 속 요셉이야기를 재미

있고 의미있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Peace Zone에서는 평화를 꿈꾸며 평화의 연을 만들고 기아대책과 함께 북한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포토존, 페이스페인팅을 경험할 수 있다. 놀이Zone에서는 바이킹, 에어바운스, 키즈라이더와 함께 영유아들을 위한 미니기차가 준비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자유놀이Zone과 영유아들을 위한 실내놀이Zone, 영유아를 위한 인형극, 아

동을 위한 운동회도 준비하여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어린이 교역자들과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 이외에도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많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 지역을 섬기는 주님의교회 인만큼 이번 무지개잔치는 이웃의 어린이들도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함께 나누길 기대한다. 요셉과 함께 떠나는 Peace Story~를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웃의 어린이들과 함께 오세요!

전보영 목사



목회칼럼

기다림을 통하여...

성격이 매우 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밥은 물 마시듯 후루룩 뚝딱 하고, 길을 갈 때에도 종종 걸음으로 서둘러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몰아서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대답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뭘 해도 남들보다 0.5초 정도 빠르다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반응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이 미처 못 알아챌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자기 얘기가,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더욱 급해지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밖에 씨를 뿌리면 내일 다 자라서 수확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금방 어떤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게 실망을 합니다. 오늘 엄청난 이슈가 단 하루만 지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에 간단하게 묻혀버립니다. 인스턴트식품처럼 즉흥적이고, 기억의 유효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조급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우리도 조급해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살아도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달을 해도 삶에는 그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긴 시간을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맺은 인연은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뒤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나 가족 같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소모되고 낭비되는 것 같은 쳇바퀴 도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관계가 깊이깊이 여물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기다림을 사용하십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기도’입니다. 기도가운데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성질 급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저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도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저에게는 복음 안에서 민족 통일을 향한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소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허준 목사

사역소식

교회 봄맞이 청소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3월 26일 (토) 새벽기도 후에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교회 내·외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청소의 목적은 교회공동체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직분자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교를 돈독히 하려는 것이었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총 70명이 참여하였고 교회 안팎을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2시간동안 쓸고 닦아 그동안의 묵은 때를 벗겨냈다. 특히 평소에 청소가 어려웠던 본당 2,3층 장의자 밑까지 3인1조로 의자를 움직이며 쌓였던 먼지를 말끔히 청소하였으며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은 계단 논슬립 청소를 말끔히 하여 계단을 오르내리는 성도들의 발길을 가볍게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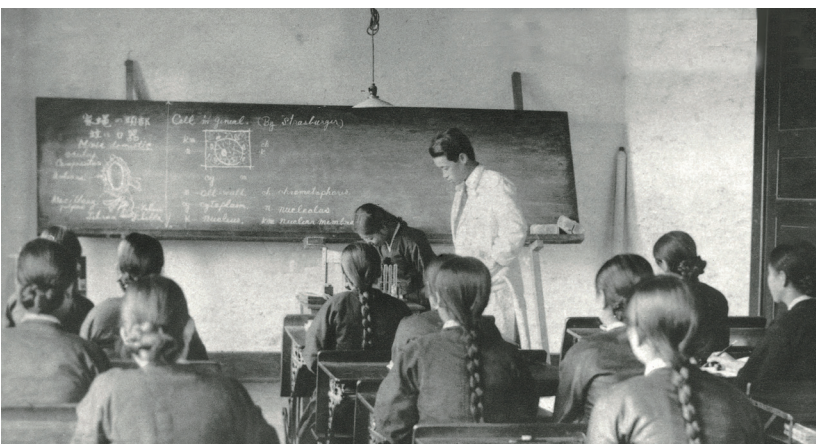
최우철 안수집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30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8)

지정학교(指定學校) 제도



사진은 1926년 정신여학교 수업광경

학생들의 동요가 자칫 일제로 방향이 돌려질까 걱정한 총독부는 1923년 4월 21일 전문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뜻으로 각종학교도 우수한 교원

을 채용하고 설비를 개선하여 내용에 충실을 기하여 성적이 향상된 학교 졸업자도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문학교(專門學校) 입학지정규칙(學指定規)’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신여학교는 9월 5일 총독부에 지정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1923년 11월 6일 총독부는 일본에서 시행 중인 지정학교(指定學校) 제도를 도입하여 사립 각종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과 교사진, 교과과정 이 학무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으면 (실력검정시험을 거쳐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 학교 졸업생에게 공립학교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指定方針緩和乎”, 동아일보, 1923년11월6일.) 각종학교에 머물러 있던 선교계 학교들이 성경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등보통

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1923년 11월 정신학교가 처음으로 지정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여학교를 포함한 대부분 장로교계 학교는 일제가 요구하는 시설, 교사진의 수준에 맞추기가 어려웠다.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이미 조선이 일제의 내선일체 교육에 기독교학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회의적이 되었다. 설상가상 입학생들이 수도 줄어들어 더욱 재정적 압박을 받았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꼬마인터뷰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요



지난 부활절 예배드라마에서 뜻밖의 외국인을 발견하고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미국에서 온 청년부의 안나 잉글양이다. K-pop을 듣고 한국드라마를 통해 활기찬 한국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온 지 2년 반. 한국말이 매우 유창하다. 주님의교회에서 열던 한국어수업을 들으면서 영어예배와 청년부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현재는 청년부에서 통일선교와 합창 사

역을 하고 있다. 작년 성탄절 성극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올해 부활절 예배드라마에도 함께하게 되었다. 드라마를 준비하며 구약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청년부 뿐 아니라 장년층과도 친교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좋았다. 짬짬과 한국 음식 등 한국의 여러 가지가 다 잘 맞고 좋다는 잉글양은 현재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매주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응원으로 오래도록 한국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함줄함줄

아기나들이



김준영 아기

2016년 2월 24일생

1.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2.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3.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되길 소망합니다.

아빠 김정서 / 엄마 김현정, 2016년 4월 17일 2부 예배

2016 어린이 무지개잔치

★ 요셉과 함께 떠나는~

Peace Story

★ 2016. 5.5(목) 10am-4pm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단신

설만한 물가 주문방식 변경



설만한 물가 주문방식이 쿠폰방식으로 바뀌었다. 현금과 카드를 기계에 넣어 원하는 음료를 택하면 쿠폰이 나오고, 그 쿠폰을 주문데스크에 내는 방식이다. 수익금은 선교를 위하여 쓰여진다고 한다

교회단신

교회사무실 복사용지 이용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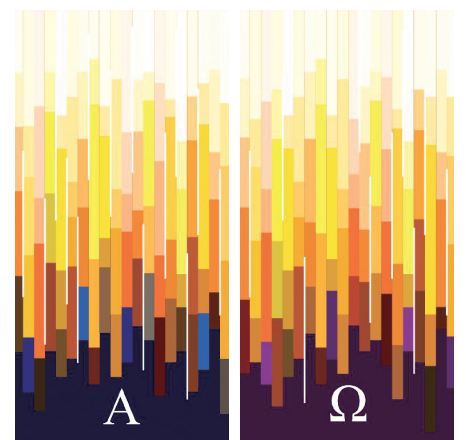


사무국에서는 교우들과 교회 각 부서에 환경보호와 교회 경비 절감을 위하여 복사용지 사용신청서를 준비하여 복사할 때에 신청서에 용도와 부수를 적어 종이 한 장이라고 절약하기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한다

사역부 소식

본당 배너 교체

미술팀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본당 전면 좌우 벽면 배너를 전격 교체했다. 수년간 부활절 후에 걸리던 배너가 낡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빛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소화하고, 회색벽면의 다소 칙칙한 본당에 활력을 주도록 환한 색감을 입혔다.



알립니다

1. 유아세례 교육: 세례식(5/1) 3부 예배시
교육 : 4/17,24(2주간) 오후1:30 초등부실(3실)
문의 : 나관주안수집사(010.4322.9917)
2. 2016 어린이 무지개잔치
주제 : 요셉과 함께 떠나는 Peace Story(마5:9)
일시 : 5/5(목) 오전10:00~오후4:00
장소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3. 예수친구사역 2단계 세미나 5차(1팀,4팀)
일시 : 4/29(금)~30(토) 오후5:00 교회출발
장소 : 가락재영성원(가평)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4. 남선교회 연합모임
일시 : 5월1일(주일) 오후2:00 대식당(지하)
문의 : 김익훈 안수집사(010.9489.8726)
*제1남선교회: 65세 이상 전교인
*제2남선교회: 55세 이상~65세 전교인
*제3남선교회: 55세 이하 전교인